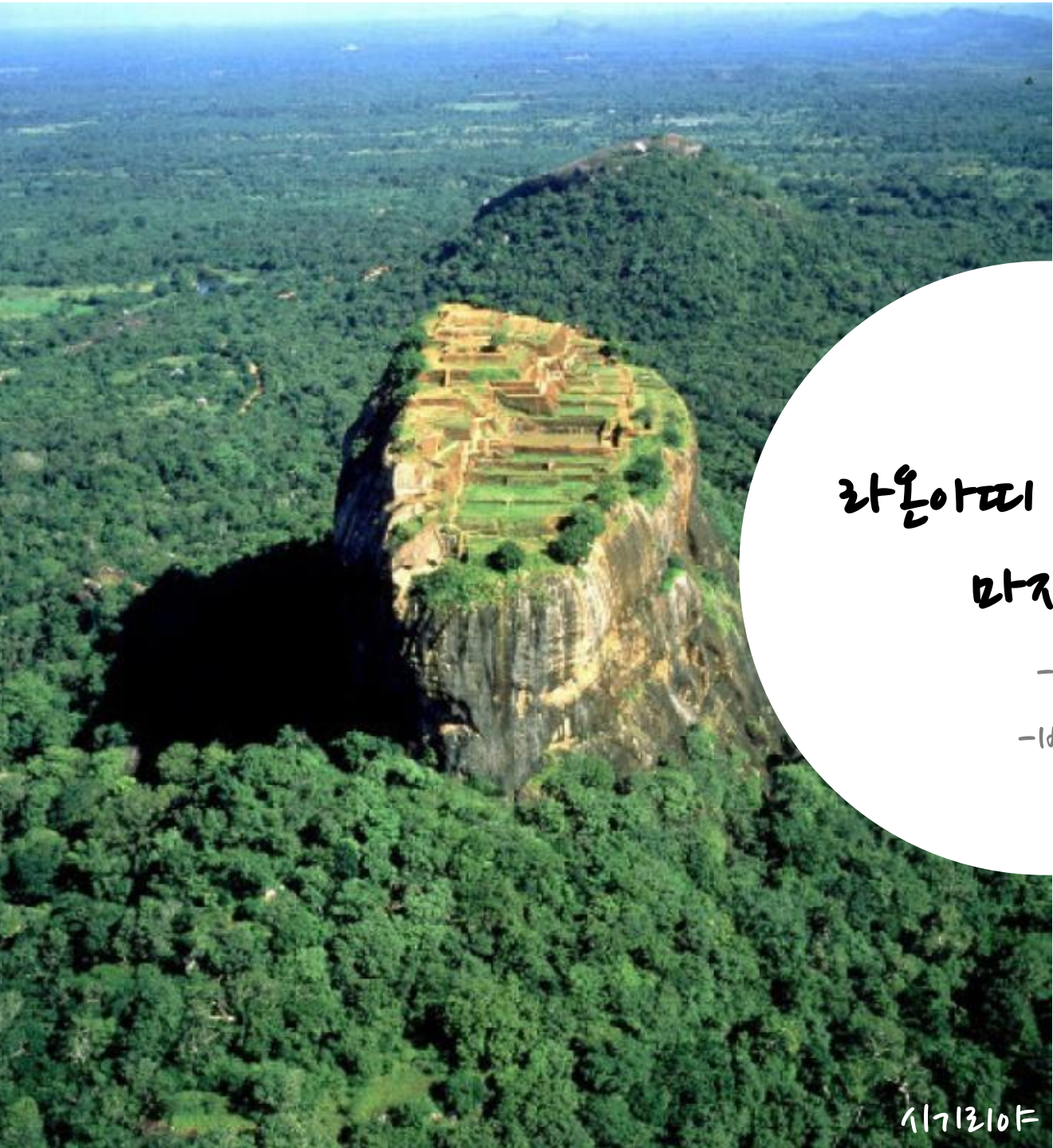




라온아띠 스리랑카 팀 10기

마지막 이야기

-Periyakallar, Sri-lanka

-박준용, 이규홍, 남솔지, 최지수

시그리야

RaonAt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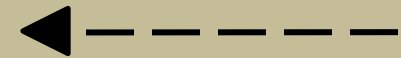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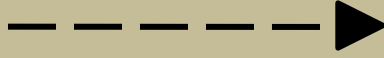
목차

- Library project
- Research
- Atti school
- children club
- End poverty campaign
- Excursion
- About our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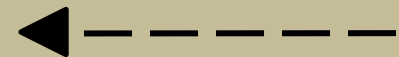


단언컨대 스리랑카가 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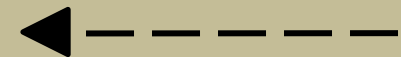
➤ Library project (9½-1½)



➤ Library project(9월-11월)



➤ Library project (9½-1½)



➤ Library project(9월-1월)

9기가 도서관을 만들려는 목적과 이유에는 우리 팀 역시 동의하였다. 칼라Y가 모든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많았으니, 일단 오래된 책들의 상태는 엉망이었다. 도서관으로 쓰일 공간 역시 문제였다. 창문이 없어 채광이 불가했고, 전구 2개만이 내부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 새 책을 위한 자금. HOW?

한국연맹에 요청? 스리랑카연맹에 요청? 자체 모금? - 칼라 마을 내 모금활동 진행

• 공간의 문제. 칼라Y 이사장님과 코디네이터와의 논의를 통해 창문을 달고 문을 보수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10월 초부터 한 달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시작. 예상과는 다르게 모금활동이 쉽지 않았다. 많은 주민들은 단순히 관심만을 보였고 모금활동의 동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매일 저녁 그 날 모금활동의 피드백을 가지며 방법과 방향을 조정하였다.

리서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10월초부터 시작된 모금활동은 2주로 마무리되었다. 중고책 60여권과 기부금 4,500루피가 모였다.

➤ Library project(9월-1월)

11월, 본격적으로 내, 외부
수리 및 정리(도서관 창문,
추가전등설치, 문 교체, 가
벽→벽돌교체)

대청소, 책상수리 및 페인트
도색/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캠페인을 소개하는 공간 등 도서관
내부 꾸미는 작업

교육자료 및 교구
재 배치(12월 중
순, 콜롬보 방문 -
새 책 구입)

1월 15일
도서관 개관

도서관 바닥 페인트
도색 및 대청소

현재 도서관은 평일(월-금) 오전 8시 반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담하여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봉사자나 직원이 없어 문제이다. 현재 칼라Y에서는 이에 적합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다.

➤ Library project(9월-12월)

Before



➤ Library project(9월-12월)

After





➤ Library project feedback

열심히 도서관을 만들어 왔는데 칼라Y는 이 도서관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속상하다. 마을의 작은 도서관일 뿐이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닥 페인트칠을 해봤다. 도서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동안 못해봤던 것들을 많이 해본 것 같다. 도서관이 이 마을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만들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 Library project feedback

도서관은 개관하였지만 도서관의 운영방안과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에는 많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

지속가능성은 차후에 계속 고민해볼 문제이다.

우리가 이 나라의 방식을 알지 못하고 우리 방법으로 하려 했다. 예) 모금활동(집집마다 찾아가는 것이 스리랑카의 문화, 하지만 우리는 길에서 모금활동을 진행하였다.)



➤ Library project feedback

도서관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고, 만들고 나서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제대로 상의를 하지 못한 것 같다.
'이거만 끝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했던 것 같다.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다.
설문조사와 모금활동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도서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는 비율이 굉장히 적었다고 본다.

Research

칼라 주민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좋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모금 활동을 10월 2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모금활동 2주차가 지나도 록 기부금액과 모아지는 책의 권수는 점점 하향곡선을 그렸다.

매일매일 그날의 모금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새로운 도서관을 만드는 일에 마을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것을 추측하게 되었고, 원래 3주로 계획했던 도서관 모금활동을 2주차에 잠시 중단하고 우리는 도서관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 마을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인터뷰와 리서치를 통해,

- 마을 사람들이 책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
- 컴퓨터와 인터넷의 도입으로 학생들이 책을 멀리한다
- 도서관에 인터넷 이용시설이 있기를 바란다
- 칼라 지역 청년들의 실업 문제

등을 알 수 있었다.



➤ Research feedback



팀원들은 9기로부터 도서관 사업을 이어받았을 때 “왜 도서관인가?” “왜 하필 도서관인가?”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은채 그저 당연히 이어나가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다.

‘도서관을 만들자’ 처음 생각했을 때 주민들의 수요나 흥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도서관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지고 있었는데 리서치와 인터뷰를 통해 ‘이 마을에 도서관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리서치 결과가 도서관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를 따져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리서치가 도서관에 큰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라온아띠를 알리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었다.

타밀어에 능숙하지 않은 터라 지역 청년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리서치를 통해 칼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알 수 있었다.(일자리 부족, 인터넷 공간을 원하는 주민들 등)

➤ Atti school



영어수업(매주 월/수, 9월~1



세계지리수업(매주 목, 9월
~11월)



음악수업(매주 목, 12월~1월)



태권도수업(매주 화, 10월~1
월)

➤ Atti school feedback

아티스쿨은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공식적인 일 중에 하나였다. 부담도 컸지만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고정적인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아티스쿨로 인해 칼라 지역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아티스쿨은 우리 기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라온아띠 전체가 같이 이어서 해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영어 수업 - 넷이서 따로 수업했었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태권도수업 - 일정상 다 마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 것이 아쉽다.

세계지리수업 - 성공적으로 아이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었다.

음악수업 - 한국어로 노래하는 아이들을 볼 때 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다.

아티스쿨 미해 난립

➤ children club(12월 중순~1월 매주 금)



‘어린이를 유스멤버로’
공동체, 팀워크, 리더십, 인간관계 등의 의미를 찾는 활동을 위주
5차시(20년 후 나의 모습 그리기, 신문지 게임, 미니체육대회, 인간 윷놀이, 바티칼로아 견학:
생태체험관/나비평화공원)



아피스쿨로 칼라Y에는 30여명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모이고 있다. 이 학생들에게는 YMCA에 속해있다는 소속감이 너무나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던 도중에, 칼라YMCA관계자들은 우리에게 칠드런클럽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고 이전에 칼라Y에 있었으나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클럽을 다시금 재 창단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부족한 그리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칼라YMCA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칠드런클럽을 열기로 하고 일을 진행해나갔다.



children club feedback

연락수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매 주 칠드런클럽 멤버 30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야 했다.

좀 더 오래 전부터 준비했더라면 연락수단에 대한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처음이니까^^ 차차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멤버 중 리더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다.

아이디어는 칼라YMCA관계자들로부터 나왔지만 기획 및 진행은 우리가 한 것이라 뿌듯! 😊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시작하고 만들어 낸 활동이라 의미가 있었다.

잘하게 준비한 것에 비해 결과가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이것이 꾸준히 이어져서 칼라YMCA 유스클럽으로 발전되면 좋겠다.

아티스쿨이 일의 일부분이었다면 칠드런클럽은 우리도 함께 즐기며 아이들과 마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 End poverty campaign

10월 15일 Tamil girls school(grade 4, 5)

16일 길거리 캠페인

17일 central college(grade 7, 9), 길거리 캠페인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타밀족의 사회 진출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곳 갈라가 타밀 지역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자존감을 높이는 campaign을 해보자고 의견을 나누었다. 하지만 현지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민족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일상생활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였다.



Tamil girls school 'End poverty campaign'



Periyakallar Central college 'End poverty campaign'



➤ End poverty campaign feedback

캠페인을 하는 당시 주민들의 평가도 좋았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나의 마음도 행복했다.

150~170여명의 주민 사람들과 함께한 캠페인, 숫자로 보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마을 사람들이 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학교라는 공공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캠페인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 같다.

우리가 일방적인 캠페인을 한 것이 아닐까, 캠페인이 끝난 이후에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을까?

길거리 캠페인



➤ End poverty campaign feedback

이 주제가 일상적인지 캠페인을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를 것 같다.

현지인들과 엄청난 토론을 지나고 아이디어를 정하고 캠페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동했을까 아닐까를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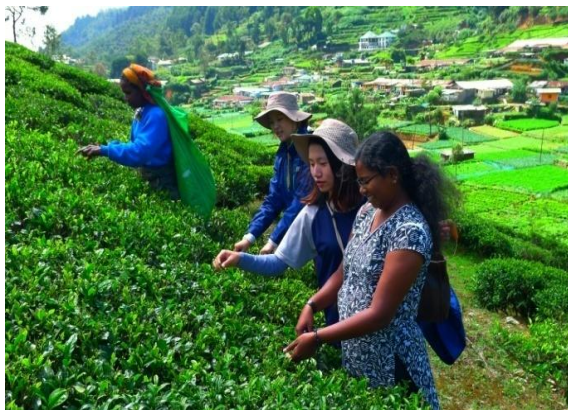
다루기 어려운 심할라-타밀의 문제를 일상적인 주제로 우리가 잘 풀어내지 않았나 생각을 했다.

길거리 캠페인

➤ Excursion(Middle) - Nov 4,5,6,7



누와라엘리야, 캔디
담불라 , 시기리야



➤ Excursion(North) - Jan 21, 22, 23, 24



트링코말리 자프나, 므레티부



➤ About our life



우리 이쁨받았쨌영>.<

생일파티, 교회 행사들
유치원 놀리블라, 스포츠미팅
마을 행사(센트럴 컬리지 암세미나 등)
마을 지역 분들로부터 초대



➤ About our life



모리해서 먹자 점차 사먹자 점차 귀찮다 누가 우리 초대 안 해주나
세월래는 매일? 아니 어느 정도 쌓이면 해
벌레? 됐어, 같이 살아 토티제 사는 게 더 비싸
청소... 내일 하면 안 될까, 회의... 내일 하면 안 될까
그래도 누구 하나 아프면 가족처럼 챙겨주는 우리 단원들

이것이 바로 스리랑카 팀 10기의 삶이요.



절대 잊지 못할
5개월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
니다 뽕!☺